

제주녹색당 제 5기 24차 정기운영위원회

*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19:00

* 장 소 : 도청 앞 천막 당사

* 운영위원 : 김순애 이진아 정화빈 김철 신현정 황용운 반영경 고은영, 안재홍 (참관: 한은정)
불참 현성미/진수은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년 9월14일 기준 439명(8/7 대비 2 증가)
- 입탈당 현황(8/10~9/14)

구분	탈당수	입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3	4	별도 정리

탈당사유	입당사유
사망(1) 공무직(1) 개인사유(1)	녹색당활동 후원 (3, 육지거주, 추천인-김철) 기상청레이다관련 논평(1)

2) 조직현황 및 활동 보고

- 8/5 현미채식모임(지난 운영위에 보고 못해서 첨부)
- 8/23 정책위원회 회의(Zoom)
- 8/29 담쟁이(페미니즘 책임기와 걷기)
- 9/9 원희룡퇴진특위 회의
- 9/12 논평팀 회의
- 9/5, 9/10, 9/12 기획논평팀 회의

3) 전국운영위 회의 보고:

제5기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08-29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 25명(참석 22명/불참 3명/참관 5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김지호 전국사무처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논의안건1. 2019/12/22, 2020/1/5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녹취록 공개 여부의 건

주문사항 : 2019년 12월 22일, 2020년 1월 5일 개최된 두차례의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녹취록을 비공개로 한다.

=>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통과됨.

반대의견 : 비공개 전제했음에도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던 83차 회의의 결정 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수원 김성연 이견을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성연)

기타의견 : 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때(조직진단, 전문위 등) 인권적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녹 김혜미)

■ 논의안건2. 떡갈나무 당원 모임의 부문위원회 전환의 건

주문사항 : 떡갈나무 당원 모임을 당의 공식 기구인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여 설치하는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통과됨.

반대의견 : 당원모임 활동이력과 이전 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위원회 승인은 성급하다는 취지로 반대합니다. (경기 손지후)

기타의견: 서울 의제모임은 규약상 2개지역 5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녹색당 당규에 부문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될만한 기준이 없어, 전문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지역안배, 위원수 등 당규 개정으로 개선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 김영준)

떡갈나무는 그동안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반면 여성특위와 소수자인권특위는 그동안 활동 미진

■ 논의안건3. 여성특별위원회와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의 부문위원회 전환의 건

주문사항 : 여성특별위원회와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와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이주민위원회로 전환하여 설치하는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이 과반수가 되지 못해서 부결됨.

반대의견 : 특위의 부문위 전환은 평가와 함께 다른 특위들과 함께 혁신안 확정 이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입니다.

■ 논의안건4. 전국당-광역시도당 당비 배분비율 조정의 건

주문사항 : 제출한(별첨) <전국당-광역시도당 당비 배분비율 조정의 건>을 승인해주십시오.

=> 큰 틀에서 제출된 안건에 동의한다. 단, 제출된 안건에서 지역공통기금(서울, 경기 배분금의 10%)을 배분 당비가 적은 지역에 최소당비를 지원하는 방향 등 몇 가지 시뮬레이션 안을 만들어서 임시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시뮬레이션 안은 경기 손지후, 경기 안소정이 작성하여 사전에 공유하고,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9월 7일(월) 개최한다.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09-07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 25명(참석 19명/불참 6명/참관 7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김지호 전국사무처장 대행

■ 논의안건1. 전국당-광역시도당 당비 배분비율 조정의 건

주문사항 : 혁신위의 재정전략(안) 및 지역당 활성화(안)에 대한 당내 구체적인 논의와 의결이 반영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당비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집행한다.

(1) 전체 광역시도당에 일괄 60%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서울, 경기 녹색당은 배분금의 10%를 지역공통기금으로 납부하여 해당 기금을 1) 전 지역 월 당비 배분액 최저 100만원을 보장하는 데 우선 사용하고, 2) 배분 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창당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해서 당규 2. 당비 및 재정 규정 제5조 (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p>제5조 (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p> <p>① 정기당비 수입은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에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에서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역시·도당 배분금액 중 30%(총액대비 18%)는 창원위 이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70%(총액대비42%)는 당비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p> <p>③ 매년 예산편성시에 제1항의 배분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되,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 배분비율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p> <p>④ 광역 시·도당은 자체 규약에 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 당비를 배분한다.</p>	<p>제5조 (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p> <p>① 정기당비 수입은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에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에서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역시·도당 중 서울, 경기 지역은 총 배분금액의 10%를 2개 지역 외 창당 및 창준위 지역 지원기금으로 납부하며 그 사용방법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p> <p>③ 매년 예산편성시에 제1항의 배분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되,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 배분비율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p> <p>④ 광역 시·도당은 자체 규약에 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 당비를 배분한다.</p>

=>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통과됨.

■ 차기 전국운영위원회 일정

=> 9월 26일(토) 오후 1시, 대전 원도심레츠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8/24 혁신위 지역간담회
- 9/10 기후위기공동행동주간 녹색당 온라인 기자회견 진행

2) 연대활동

- 8/18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 8/18 민중연대 진보정치 전략기획단 회의
- 8/25 제주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출범 기자회견
- 8/27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 회의
- 9/4 진규범 당원 재판
- 9/9 황용운 당원 재판
- 9/12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 공동 행동
- 9/13 도청앞 천막촌 회의
- 9/15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3) **논평/보도자료**

- 8/13 기상청 공항레이더사업에 대한 논평
- 8/16 원희룡지사의 광복절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
- 8/20 제주한림해상공력발전 개발사업 시행 승인고시에 대한 논평
- 9/1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사과에 대한 비판 논평
- 9/2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 논평
- 9/10 기후위기 대응 촉구 온라인기자회견문

3. **회계보고(별첨자료 참고):**

<별첨자료 1> <2020년 8월 결산>

수입	이월금	10,838,430
	정기당비	1,692,634
	특별당비	
	후원금(비당원 이성헌)	500,000
	그밖의 수입(캐시백, 이자 등)	1,839
	총수입	13,032,903

지출	인건비	인건비	사무국(2인)	1,200,000
			회계	100,000
	소계			1,300,000
	사무실설치운영비	공과금 및 유지비	천막수리	9,000
		물품 구입비		
	소계			9,000
	정책개발비	정책위지원	토론회 등	
			정책위모임(의제모임)	100,000
		연대사업비	분담금(민중연대, 차별연대)	100,000
		정책홍보비	페이스북 뉴스레터 홍보	6,000
	소계			206,000
	조직활동비	의제/지역모임 및 기타 회의비	의제/지역모임	90,000
			회의비(운영위)	45,000
		회원사업비	정당연설회	8,020
		교육/행사 사업비	혁신위간담회(식비, 대관료)	67,500
		문자전송		
		여비		
		위원장활동비	정화빈	100,000
		홍보물 편집비	박진호	100,000
		기타(잡비)	문자알림(계좌)	300
소계			410,820	
적립금	퇴직적립금	3월 퇴직적립금(8)	107,900	
예비비	예비비			

총지출	1,925,820
잔액	11,107,083
퇴직금 총적립액	1,013,300

<별첨자료 2 의제모임>

의제모임	현미채식모임	참석	5명
날짜	8월 5일(수) 6시	장소	녹색페인트
참석명단	한은정, 부순정, 이현주, 박진호, 황용운 작성: 한은정		
회의내용	<p>● 다큐보기: 카우스피러시</p> <p>‘공장식 축산’만 해결해도 기후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함을 느끼다. 자가면역질환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관계가 깊다 (참고자료: http://m.blog.naver.com/yogi_f/150187122958, 자가면역질환과 동물성단백질(우유)와의 연관성, 비건생활연구소)</p> <p>주2회, 혹은 월 1회 제주녹색당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날로 정해보면 어떨까?</p> <p>채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고민해보자.</p> <p>오늘 모임처럼 영화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라이브로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p> <p><기타 참고할만한 의견></p> <p>동물성 단백질 중 ‘우유’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자. 다크에서 우유의 본질은 ‘어린 송아지를 150킬로가 넘는 거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사람이, 특히 아이들이 먹고 자란다는 것은 어른들이 고민해봐야할 지점이다.</p> <p>그렇다면 학교에서 우유를 단체급식하는 것도 문제다 (제주는 축산업보다 감귤업 규모가 훨씬 크다. 감귤급식으로 바꾸면 좋겠다)</p>		
다음모임	9. 5(토) / 18시 / 녹색페인트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7명 (당원)
만난 때	2020. 8. 23.(일) 10:00		만난 곳	ZOOM 회의
만난 이 들	당원	김철, 노민규, 반영경, 엄문희, 이희준, 이선자, 김순애(사무처) 불참: 안재홍(입원), 전서윤(객원)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개별 연구과제 진행 상황 공유 및 상호 피드백</p> <p>1) 김철: 제주에서 “자전거 생활”의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상황을 살펴보니 제주시 도시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 고도차로 녹록치 않음. - 해안도로 여행자 코스 외에 실생활에 자전거 확대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고민 - 제주도내 20-30대의 동선이 주로 종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자전거 실생활화를 어렵게 함 - 제주의 자전거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2018 지선 정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자 - 2018 제녹당 정책에서 유효한 부분을 강화, 유효하지 않은 부분 제거 - 제주도의 자전거 관련 물리적 현황 평가하고 지난 지선 정책 보강 - 전기와 페달 결합된 자전거의 유효성 살피기 <p>2) 반영경: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세력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의식과 고민 진척 없어서 막막한 상황 - 몇 가지 계획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작업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 제주도의회에서 2005년 발간된 ‘제주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간행물 찾아보기 - 정책과제를 더 좁혀서 디자인하기 위한 별도 토론 과정 필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의 위탁 작업을 많이 수행, 2020년 연구과제에는 제주 성별영향 평가 등 있음 도내 여성역할 자료나 연구결과 등 찾아보기 - 사무처와 문희, 영경이 이후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자료를 어떻게 검색할지 등등 의논해서 구체화 <p>3) 이선자: 제주형 농업(지하수 오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특히 친환경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제주도가 친환경 지향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너무 적다 - 기후위기 상황이지만 제주의 상황은 반환경적인 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촌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 - 농약 사용, 제초제 사용량 큰 폭 증가-고령화랑 연관되지 않을까? 저투입 농사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 - 서부지역이 질소 함량이 훨씬 높다/양돈장, 양돈 폐기물 가공 시설도 많은 상황/농업과 환경 오염의 연관성/서부지역의 지하수 토양 오염 심각/양돈사업과 연관 - 친환경 농업 확대에 포커싱: 농업기술, 기후위기 환경 등에 대처하는 정책적 수단이 어떻게 필요한가 등 노동집약적인 친환경농업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농지 문제. 직불제든 농민수당이든 구멍이 많음, 구멍을 작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농지 개혁-농민만 농지 소유할 수 있게 했지만 유명 무실화. 농지법이 문제의 핵심 - 부재지주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지 현황 파악(가능하면) - 친환경농업 확대 위한 정책 제시에 집중(희준님이 자료를 보고 가능한 범위 내 협업) <p>4) 엄문희: 군사기지 없는 섬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커먼즈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 준비 중 - 국방비 지출과 재정 순환의 관련성을 보려한다(논리의 전체 근거 마련해서 국방비 감축 주장이 나올 때 도전받는 언어들 해결할 필요성) - 비핵조례TF 활동이 지금 안되는 상황에서 녹색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 TF에서 우선 모임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하면 녹색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 녹색당이 해군기지에 대해 어떤 정책적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토론 및 확인 필요 <p>5) 노민규: 항만공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 전 모슬포항 등 고시됐지만 코로나로 본격적인 진척 없는 것 같음 - 현황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인지 하나 주제를 핵심으로 할 것인지 이후 결정 - 작년부터 항만 계획 나왔고 올해부터 기본계획 고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 - 도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 현황 추적 필요 - 제주 신항 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계획 및 상황 파악하고 남아있는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 공유 수면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주 신항 문제로 더 좁히면 어떨까?->개괄적인 파악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좁혀서 나오겠다 <p>6) 이희준: 제주형 경제 공약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미통당의 기본소득논의 등이 일시적이고 회피적인 내용으로 정치지형에서 전환하고 있다음 - 기회주의적 기본소득론 참칭 - 녹색당 총선 기본소득 정책은 너무 허술, 오랫동안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고도화된 내용 미약하고 구체적인 접근 부재,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음 - 종합적인 로드맵을 위해서는 민주당, 미통당의 우파적 정책과 차별화된 기본소득 공약 확장 필요 - 9월 둘째 주 정도 커먼즈 관점에서 들어보고 녹색당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가치 공유 - 처음에는 기본소득의제가 급진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우리 언어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 - 제주녹색당은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자꾸 던지면 좋겠고 2018 지선 제주기본소득정책이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되어야 <p>2. 에너지 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홍+비가림이 기획 및 내용 세팅, 기후위기와 에너지 뗄 수 없는 상황, 그린뉴딜 제주 에너지 정책을 정리할 수 있는 토론회로 준비(예산은 재홍님이 지원처 물색)
<p>다음 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회의는 9월20일(일) 오전 10시 살롱드문

모임이름	담쟁이(페미니즘 책임기와 걷기)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명
만남 때	2020.08.29.		만남 곳	고성리 양인숙님댁
만남 이데	당원	최희정, 양인숙, 이은정		
	비당원	최신자		
이끈 이	최희정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페미걷기 - 폭염으로 걷기 생략</p> <p>☆독서토론</p> <p>29일 11시 30분 ~ 13시 30분 양인숙님댁</p> <p>8월의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리베카 솔닛)</p> <p>* 책 선정 이유 : 예술비평과 문화비평 등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페미니스트작가이자 반핵, 환경, 인권운동에 열렬히 동참한 현장운동가. 리베카 솔닛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고 전세계적인 공감과 화제를 몰고 왔다. 미국의 정치와 소수자 인권,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고 토론하면 좋겠다.</p>			
	 <p>* 밑줄 긋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숨겨져 있던 잔혹함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낸다. - 이야기를 바꾸는 일, 이름을 바꾸는 일, 새 이름이나 용어나 표현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일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핵심적인 작업이다. - 가부장제는 이야기들과 여자들을 죽여서 세력을 유지한다. - 우파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 세상의 일들은 다른 일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연결되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그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다. -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 하나만 집어 올리려고 해보면 그것이 우주의 나머지 모든 것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후변화만큼 개인주의적 사고의 어리석음을 또렷이 보여주는 혹은 체계적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다. - 헌신적인 활동가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보통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과 증오는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누구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를 겨누는다는 명목으로 증오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희망은 썩 좋은 것의 적이나 다름없는 완벽에 집착하지 않고, 승리의 문턱에서 굳이 패배를 낚아채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썩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이 일부 우리에게 달려있는 데도 꼭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p>* 감상이나 비평, 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의 관심 영역은 미국정치와 여성혐오, 소수자, 젠트리피케이션, 기후위기 등 광범위 할 뿐 아니라 매우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조목조목 알려준다. 보석같은 페미니스트 전사들을 만날 때마다 경탄하며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안도한다. - 책 제목이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인 것이 책의 내용을 잘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다. 언어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탓에 이 책 첫 머리에 언어의 위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데 원제목 'Call them by their true names'의 직역이 더 낫지 않았을까./ 너무 직설적인 어법보다 좀 더 은유적인 제목을 선택한 것이 출판사의 전략일수도 있을 것 - 언어와 명명은 중요하다. 지금껏 남성의 관점과 남성언어로 살아와서 잘 인식 못하지만, 조금씩 바로잡거나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 (유모차→유아차, 미혼→비혼, 출산율→출생률) - 처음에는 문장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미국 내의 소수자 혐오나 차별에 대해 알고 분노했다. 부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했는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과 달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살기에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국가인 줄 알았던 것이 오해였다./ 법이나 공식적인 규범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강화될수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다. - 책의 구성이 좋다. 착취와 학살로 출발한 미국의 역사에서 시작해, 트럼프 당선으로 더 극대화된 미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부정의에 대항하는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실천으로 희망을 얘기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잘 정리해주고 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실천 중 으뜸은 채식인데, TV를 보지 않으면 더 실천하기 쉽다. 채식보다 금주가 더 어렵다. - 인종, 기후위기, 정치, 젠트리피케이션 등 모든 주제에 대해 나는 책을 읽으면 항상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게 된다. 내 성격이나 인성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성찰한다./ 나는 독서를 하면 저자의 의도와 논리에 너무 잘 공감하는 편이라 오히려 비판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하게 된다. - 분노는 에너지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분노를 넘어서 현실을 바꾸는 실천을 하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집의 정전사태 때문에 분노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전력 본사에까지 전화를 걸고 항의한 결과 우리집과 주변 까지 불편했던 전기 문제를 해결했다. 내 개인의 문제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다행이다. - 결국 미국의 사회변화를 가져올 시민운동의 힘을 믿으며 희망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도 제2공향이나 비자립로 운동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생각 -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인종 간 정의를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여성과 LGBTQ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가능성을 본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주라.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생각은 전염되고, 감정도 전염되고, 용기도 전염된다.”
다음 모임	9월 26일(마지막 토요일), 9월의 책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김은실 역음)
적은 이	양인숙(총무)

모임이름	원희룡퇴진특위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
만남 때	9월9일 21:30		만남 곳	Zoom
만남 이틀	당원	김순애 안재홍 황용운 노민규		
	비당원			
이끈 이(지기)	황용운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원희룡 브레이크 없다. 브레이크를 만들 것인가? - 원퇴위에서는 힘들다. 주민소환을 해야하는데.. 민중연대 안에서 이런 힘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 민중연대를 움직이는 큰 틀이 진보당, 양추사, 전농, 전여농 등/진보당이 움직이면 가능할까? - 투쟁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선거연합해야 한다 -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연합 필요 - 반원희룡 전선 만들 필요 있다. 원희룡 퇴진 투쟁을 진보당이 앞장서는 게 어떻겠는지 진보당 대표에 제안/민중연대 9.16 회의 전, 진보당내에서 원퇴진과 관련 결론을 내고 진보당이 나서겠다고 하면 녹색당에서 디테일한 안을 같이 만들고 회의 참여 - 진보당이 나서면 민중연대도 나설 것이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원희룡대권 도전 선언했을 때 퇴진운동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주위에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반응. 민중연대에서 주민소환운동 시작한다 할지라도 같이 투쟁할 역량이 있을까 회의적. 하지만 선거연합을 하려 한다면 같이 동일한 목적의 투쟁을 시작해야 - 대안이 나오긴 해야 한다. 진보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 민중연대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소환은 해볼만한 카드/하지만 초반 기세몰이는 되겠지만 운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타격. 책임,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다. 객관적인 것을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실재적으로도 진보세력과 같이 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같이 할 것 없다. 지역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정치적 구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적 능력 - 변하지 않는 상수: 부패한 권력 <p>우리 쪽 변수: 진보당/민중연대/녹색당 단독/ 1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회의를 하자</p>			
다음 모임은	9.17 오후 1:30 대관원			
적은 이	김순애			

모임이름	논평팀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5
만난 때	9월12일 20:30	만난 곳	Zoom
만난 이들	당원	반영경 엄문희 이상영 노민규 김순애	
	비당원		
이끈 이(지기)	반영경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지난 논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고루 다양한 주제로 잘 나갔다. 몇 개 논평이 작성되었지만 다른 논평과 겹쳐서 나가지 못함, 보완 방법 어떻게 세울 것인가? <p>2. 의견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배포 날짜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VS- 몰릴 때 몰리는 경향이 있어도 타이밍상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 노동 관련,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에 대한 논평/ 림팩 관련 논평이 안나가서 아쉬움 - 단체나 집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 정치적 논평 나가야 하지 않을까/간단하게라도 동지임을 확인시켜주는 논평 나가야/국방은 강정 해군기지를 고민하지만 국방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는지, 해군기지에서 사건이 나와 발신하고 있는 상황(하지만 인적 역량과 관계가 있어서 의지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움) - 정말 중요하다면 두 개 논평이 나가고 언론사에서 선택하도록 -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인가?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모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 논평 작성 단계에서 공유와 합의, 빠른 피드백 하면 좋겠다 -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의견 내기 어려움/상대방의 논평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에서 질문과 피드백해야 - 논평 작성단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운영위 논평과 기획 논평팀 논평도 논평팀에서 걸러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서로 다른 독립적 구조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 어느 정도 정책 대안이 제시된 논평과 입장이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해서 논평을 내면 좋겠다 - 논평팀이 논평을 책임감 있게 주로 제작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논평을 의뢰할 수도 있다. - 기획논평에 대해 제안하려고 함, 하지만 역량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제안하지 못함, 기획논평팀과 역할을 분담하면 서로 편해지지 않을까(기후위기, 제2공항 문제는 기획논평팀) -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토론 필요성->정책위에서 토론 제안하면 가능 - 국방, 의료, 노동 등의 사안들에 대한 정리된 입장 있으면 좋겠다 <p>3. 의견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작성 단계에서 조정, 공유, 토론 필요/ 빠른 피드백 하기/불편하더라도 토론 필요 - 기후위기, 제2공항 문제는 기획논평팀에 작성 제안 - 학생인권조례 논평 작성(이상영) 차별금지법-위성곤 관련 논평(엄문희) 		
	다음 모임은	미정	
적은 이	김순애		

기획논평팀 회의록

- 총 3회 온라인 회의 진행 (9월 5일(토), 10일(목), 12일*토))
- 참가: 고은영, 김철, 반영경, 안재홍, 한보스 (진행: 고은영)
- 1차회의 : 논평의 천제, 운영방식, 전반적인 의견 공유
- 2차회의 : 자료 및 논평 모음 검토 의견 교류 / '제2공항 그 후' 리포트와 '정의로운 전환 이후' 리포트, 정반대의 대응 결과를 대비, 대전환의 필요성, 절박함 강조.
- 3차회의 : 두 가지 리포트 구성, 구체화를 위한 논의

[제2공항 기획논평팀 1차 회의록]

- 1) 운영 범주
 - 천제 세우기: 제2공항이 제주의 기후위기를 가속시킨다.
 - 분야 별 내용 다루기: 문제점(각종 데이터) / 공항 대신 000 / 전환 정책
 - 문서 남기기: 분야 별 폴더 형성(클라우드) / 기획논평 작성, 언론 배포 / 최종 성과를 가지고 추후 다시 논의, 판단.
 - 2) 할 일
 - 세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질문, 고민
 - : 제2공항 싸움의 그간의 고민들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 : 주민을 꼭 대변해야 하는가? 1.5도씨 보고서 채택 전후의 세계는 달라야 한다. 메시지도.
 - : 제2공항 관련 제녹당 논평과 입장을 싹 모아서 리뷰하자.
 - : 지방도시의 패스웨이를 고민해보고 싶다.
 - : 제주 배출 제로 경로 설정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
 - : 제주 자원이 귀한 줄 몰라. 시민을 설득할 수 없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설득력이 담보될 수 있는 주제인가?
 - : 군사기지, 해양, 농업, 사회적경제
 - 연구자들에 간담회나 발제를 요청해보는 것은 어떤가?
 - 3) 역할 (2번 정리되면 논의한다)
 - 4) 일정 : 최초 기획대로 2020년에 마감 / 세부 일정은 2번 정리되면 논의한다.
- 숙제
- 1) 제2공항 관련 발표 논평/기자회견문 등 취합 공유 (한은정)
 - 2) 2018 지방선거 정책 자료 공유 (고은영)
 - 3) 위 자료들 숙지 (all)
 - 4) 마음 속 one-pick 주제 생각해오기 (all)

[기획논평팀 2차 회의]

1. 과제 리마인드 : 자료, 스터디하면서 든 고민 나누기 / 오늘 중 팀 업무 범주 정하자
2. 각자 고민 1차 논의
 - 한은정: 과거 제녹당이 법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했던 내용이 실제 반영된 것은 없다. 그 현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벽에 부딪힌 기분. 관광에 많은 초점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대중교통-에너지 등이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 한은정: 실제 분야 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성 기반의 작업보다는, 공공성 등 전환의 조건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싶다.
 - 김 철: 한은정 님이 느끼는 것에 동의한다. 제주녹색당의 언어들이 정리되고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본질적 전환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상황. 제녹당의 슬로건을 찾아야 한다. 부문 별로 바꿀 수 없고 전체적인 시야를 바꿔야 할 상황.
 - 김 철: 제2공항은 표면적으로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문제점과 현실을 건드려야 한다. 기후위기 징후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과거 했던 작업이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 안재홍: 고민하겠다.
 - 반영경: 당위로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이외에 제녹당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반영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 고은영: 하고 싶은 작업은 극과 극의 제주 미래 리포트를 써봤으면 좋겠다. <제2공항 그 후 리포트> / <정의로운 전환 리포트>
3. 추가 논의
 - 제2공항이 기후위기와 어떤 연관이 있나?

- 여행을 창출하는 상상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작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 미래 관광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 기후위기는 영역이 방대하다. 어떻게 시민이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 2035년 제주 30세 청년 10명의 삶 이야기 - 부모의 삶, 기후위기, 산업 연계 등등. 논평으로 다룰 수 있을까?
- 탈성장, 공공성 등 담론의 언어가 아니라 그를 내포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기획논평팀 3차 회의]

<내용 안건>

1. 정의로운 전환 리포트는 기획서를 기본안으로 하여 좀더 논의하기로.
 - 녹색당 정책을 참고하여 '삶'을 보여주자.
 - : 전환 필요 부문 선정 >> 축산(재흥 공부 중), 교육, 에너지 전환 등등
 - : 생태배당/기본소득, 인권 조례, 생활동반자 조례, 동네 비즈니스 돌봄 교육, 고등 교육, 채식 먹거리, 공공교통, 의료 동네 주치의, 동물과 함께 하는 삶, 어떤 주말을 보낼까나...
 - 기존 삶의 저항을 인식하자.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지 말자.
2. 제2공항 그후 리포트 서류부터 모으고 포캐스트 방식으로 계산
 - 제2공항 기본계획 수요
 - 국제자유도시 & 현재 대형 사업장 고용 계획
 - 15년 간 평균 상승 지수
 - : 내국인 카지노, 면세점, 호텔, 골프장, 공항 (만족도)
 - : 부동산
 - : 소비자 물가
 - :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가계대출
 - : 기타 생활 관련 지수
 - 직업 만족도, 일자리 평등(정규직, 하청 등등) 고려해야 할 것.
3. 리포트 톤앤매너 관련
 - 2035년을 시뮬레이션해볼 때, 현재 청년 고용 상황, 심리적 위축 등 상황 매우 심각해서 날카롭게 현실화해서 접근해야 한다.
 - 톤앤매너는 발랄하게 했으면 좋겠다.
 - 현재 살아가는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부터 체크해서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 15세 청소년 인터뷰 - 미래 직업에 대해서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4. 10명 캐릭터 정하기 >> 지역 / 성별 및 성적 지향 / 교육 / 계층(부모) / 일자리 평등(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 여러 감수성

<기타 공유사항>

1. 기타 - 논평팀의 당부 공유 >> 기후위기/제2공항 관련 대응 논평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 팀명 바꾸자. 카톡에서 제안 후 선정. 선정자에게 상품권 주자.

<역할 분담>

1. 기획서 중심 역할 분담 필요
2. 고은영이 기획서 1차로 정리하고 디테일 수정/보완하기로

<별첨자료 3>

<혁신위 추후 일정>

9/14(월) 혁신안(당원토론회용) 작업완료

9/15(화) 혁신안 혁신위원 회람(자정까지 잔디에 수정보완 의견올림)

9/16(수) 12시 녹색당 홈페이지 혁신안 게시

9/19(토) 2시~4시 당원토론회(혁신위 소위원장+참여희망위원 11:30분 집결) 장소: 합정역8번출구
위드워드

9/20(일) 1시 혁신위원회 10차 회의

9/22(화) 녹색당 혁신안 최종안 제출

9/25(금) 당원총투표 설명회(위원장 영상 혹은 실시간 설명)

10/5(월)~10/9(금) 당원 총투표

10/11(일) 혁신위원회 해단식